

# 국어 조사에 대한 話用論的 연구

閔 賢 植\*

1. 본고는 격(case)과 한국어 조사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조사를 화용론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sup>1)</sup> 격과 조사의 형태·통사론적 문제는 그간 전통문법과 구조주의문법 중심의 표면구조적 논의가 있어 왔으나 국어 조사의 분류와 격범주 설정에 많은 문제를 지녀 왔었고, 60년대 말부터 변형생성이론이 진보한 격문법이론에 의해 심층구조적 논의가 진행되어 김영희(1974), 성광수(1979)의 연구로 총합되는 업적을 쌓아왔다. 그러나 격과 조사의 문제점들은 격문법이론에 의한 깊은 탐색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첫째, 격이란 무엇이며 격범주의 설정은 어떤 문법적 위치를 갖는가<sup>2)</sup>  
둘째, 국어의 격범주 설정에 따른 분류와 조사와의 관련은 무엇인가<sup>3)</sup>  
셋째, 전통·구조문법의 격이론과 격문법의 격이론의 관계와 차이점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문제점에 비취 본고는 줄고(1982)에서 시도한 話用論的 조

\* 國文學科 同門(國語學 專攻, 德成女大 講師)

- 1) 격과 조사의 종합적 논의로 김영희(1974), 신창순(1975, 1976) 성광수(1979), 줄고(1982) 참조. 줄고(1982)는 화용론적 접근을 통해 소위 조사생략을 無標格(unmarker case)개념으로 설정했다. Austin에 의해 표현된 화용론에 의한 국어기술에 대해서는 장석진(1975, 1976), 김민수(1981), 최근 나온 개론서로 김종택(1982) 참조.
- 2) 격은 체언의 곡용 (declension) 범주로 보통 '발화문에서 체언이 갖는 다른 어류와의 관계'로 정의됨. Fillmore(1968), 최현배 (1971) 참조.
- 3) 격범주설정은 영문법에서도 학설이 구구하며 격문법학자들도 분류에 일관성, 통일성이 없다. Fillmore(1966, 1968, 1971)도 수차 수정했고(9 격), Chafe(1970) 7격, Nilsen(1973) 15격 등이다.

사의 연구를 심화시켜 격과 조사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그간 이뤄진 격과 조사 논의의 업적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본다.

2. 전통·구조문법의 격개념은 표면구조에서 체언류의 격개념을 정의하고서도 체언류보다 격형태(case form) 중심의 격개념이었다. 따라서 체언의 기능범주로서의 격범주가 체언 자체에 1차적 기능 가치가 부여되는 것임에도 오히려 격형태라 하는 조사류에 더 부여되어 주격이 전도된 채 조사에 대한 격기능 부여에만 의견이 만발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조사 중심의 격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녀왔다.

첫째, 한 조사 형태의 여러 격기능과 한 격기능에 동원되는 여러 조사류의 문제로 인해 격과 조사형태의 1:1 대응은 거의 어렵게 되었다.<sup>4)</sup> 예컨대 흔히 주격 ‘이/가’라 하는 것도 주격(아래의 (1-1))으로만 아니라 목적격((1-2)), 보격((1-3))으로도 기능하여 1형태 3격기능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 (1-1) 물이 많다. (주격 ‘이’)  
 (1-2) 물이 먹고 싶다. (목적격 ‘이’)  
 (1-3) 물이 된다. (보격 ‘이’)

또한 처격 ‘에’, 향격 ‘로’라 하는 것들이 각각 여러 의미로 쓰임에 따라 처격, 원인격, 비교격, 여격 등으로 명명되어 온 따위도 동일한 예가 될 것이다. 또한 후자의 예, 즉 하나의 격기능에 동원되는 여러 조사류의 경우로 주격기능에 쓰이는 ‘이/가, 은/는’ (아래 (2-1), (2-2))의 경우라든가(이로 인해 ‘주어~주제’ 논쟁이 생김)

- (2-1) 내가 학생이다.  
 (2-2) 나는 학생이다.

4) Nilsen(1973:84). 영어도 *American English Grammer* (1940:112-113)에 따르면 전치사 사용빈도에서 표준영어의 92.6%가 9주요 전치사(at, by, for, in, on...등)에 집중되었고, *Oxford Dictionary*에는 이들 각 전치사의 다양한 문맥의 미만도 36가지에서 그 절반에 이르는 양상이다.

치격기능에 쓰이는 ‘에, 에서’의 경우,

(3-1) 학교에 있다.

(3-2) 학교에서 공부한다.

그리고, 공동격기능에 쓰이는 ‘와/과, 하고, 량’

(4-1) 나와 간다.

(4-2) 나하고 간다.

(4-3) 나랑 간다.

등의 경우가 있어 결국 격과 조사의 1:1 대응 관계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런 묵언하에서 주격 ‘이/가’ 나, 치격 ‘에’, 향격 ‘로’나 하는 것도 사실상 그조사류의 여러 격기능중 대표적 기능의 명칭을 붙여 부른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둘째, 격의 명칭에 있어서 범주의 혼란이 있어 왔다. 즉, 종래 전통·구조문법의 격범주 명칭은 체언의 표면 통사기능을 중심으로 한 격명칭인 주격(←주어격), 보격(←보어격), 목적격(←목적어격), 서술격(←서술어격), 관형격(←관형어격), 부사격(←부사어격), 독립격(←독립어격) 등의 명칭과, 체언의 다른 어류에 대한 내면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한 격명칭인 변성격, 속격, 대격, 처격, 향격, 도구격, 원인격, 비교격, 공동격, 호격 등의 명칭이 혼합된 양상으로 통용되어 왔고 이러한 통사기능범주에 의한 격명칭과 의미기능범주에 의한 격명칭의 혼합사용은 사실상 통사범주와 의미범주의 차원을 혼동한데 기인한 것이었다. 덧붙여 관형격~속격:목적격~대격:부사격~처격, 향격 등 용어의 상호 혼란은 범주의 분명한 구별 사용이 아쉬운 것이었다.<sup>5)</sup>

3. 이러한 전통구조문법의 격과 조사논의의 문제점은 변형생성문법에서 진일보한 격문법이론에 의해 언어구조의 심층구조가 규명됨에 따라

5) 김민수(1976:160-164) 참조.

많이 해결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격문법에 의한 격과 조사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본질이 접근하게 되었다.

첫째, 격형태인 조사에 치우쳐 온 전통구조문법의 격개념에서 떠나, 용언의미구조에 지배받는 체언 자체의 의미구조를 중시하여 당연히 체언 자체에 격개념이 부여되므로 격법주관 ‘체언의 의미기능법주’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행위격(Agentive), 경험격(Experiencer), 피동작격(Patient), 수혜격(受惠格, Beneficiary)... 등의 체언 의미기능법주가 변별 설정되어 이것이 곧 격법주가 되었다.<sup>6)</sup> 예컨대 전통구조문법에서는 ‘내가 간다’라는 문의 경우 ‘나’를 주어, ‘가’를 주어적표지 즉 주격조사라고 하여 왔는데 사실상 이것은 문의 표면 통사기능에 대해 명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격’이란 체언의 용언에 대한 관계개념이므로 ‘내가 간다’ 문에서 ‘나’라는 체언은 ‘가다’라는 사용용언에 대해 주어의 격식(자리, 즉 격)을 지녀 ‘나’ 자체를 주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엄밀히 체언이 무슨 성분으로 기능하는가의 성분격 개념을 따른다면 ‘내가 간다’ 문의 ‘나’는 주어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지 이때의 ‘가’는 일반 중성문에서 주어적 체언뒤에 와서 그 선행체언(여기서는 ‘나’)이 주어임을 분명히 明示(혹은 강조)하는 기능을 지녔을 뿐인 것에 불과하지 결코 ‘가’가 어디서나 꼭 체언뒤에 와야 그 체언이 주어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로, ‘나 간다’ 같은 경우 ‘가’없이도 우리는 ‘나’와 ‘간다’라는 NP-VP 의미기능 관계를 통해 ‘나’가 주격체언 즉 주격으로 기능함을 인지할 수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내가 간다’의 ‘나’를 ‘주격’이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체언 ‘나’의 표면통사기능에 따른 성분격개념이며 격문법에 이르면 ‘나’의 내면 의미기능상 ‘나’는 행위격(Agentive) 체언으로 즉 행위격이라 칭할수 있게 된다. 결국, 한 예로 표면통사기능상 주격이란 것도 내면의미기능상 여러 의미격으로 세분될 수 있으니 아래

6)Chafe (1970), Fillmore(1971), Nilsen(1972, 1973)참조.

의 예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sup>7)</sup>

(5)	<전통·구조문법> —표면 통사기능—	<격문법> —내면 의미기능—
개가 철수를 물었다.	개 : 주격(주어)	개 : 행위격(行爲格)
칼이 잘든다.	칼 : "	칼 : 도구격(道具格)
둘이 많다.	물 : "	물 : 대상격(對象格)
철수가 영화를 즐겼다.	철수 : "	철수 : 경험격(經驗格)
중오가 싫었다.	중오 : "	중오 : 태격(態格)
2,000원이 물건값이다.	2,000원 : "	2,000원 : 양격(量格)

둘째, 체언의 의미기능범주가 격범주로 변별됨에 따라 국어의 조사류에 대한 분류도 새로워져 전통구조문법에서 격조사로 보던 주격 ‘이/가’, 목적격 ‘을/를’, 관형격 ‘의’, 공동격 ‘와/과’ 조사는 더이상 격조사로 보지 않게되어 이들은 표면구조상의 구문조사가 되며, 격조사는 ‘에, 에게, 로, 서, 써, 부터<sup>1</sup>, 까지<sup>1</sup>’ 및 이들의 ‘복합형’으로 되는 체계이고 종래 보조사 또는 특수조사라고 하던 ‘는, 도, 야, 라도, 부터<sup>2</sup>, 까지<sup>2</sup>,<sup>8)</sup> 만, 조차, 마저, 써……’는 한정조사(delimiter)라고 하여 결국 국어 조사류는 구문조사, 격조사, 한정조사의 3분체계로 보게 된다(김영희(1974), 성광수(1979) 참조).

셋째, 격개념이 체언 자체에 부여되는 체언의 격개념인 이상 격형태인 조사류에 대한 격명칭 부여는 2차적 명명성(命名性)을 지닌다. 즉 ‘내가 간다’의 ‘가’가 행위격 체언 ‘나’에 붙었으므로 행위격조사라고 한다면 ‘기계가 만든다’의 도구격체언 ‘기계’에 붙은 ‘가’는 도구격 조사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격조사 명칭부여는 선행 체언의 격기능에 의존하는 전혀 2차적 결과이므로 의미 없는 작업에 불과한 것이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까지 조사에 선행적으로 고유하게 내재한듯

7) Nilsen(1973:129-133), 줄고(1982:10) 참조. 본고의 격용어는 Nilsen(1973)의 15의미격체계에 따름.

8) 부터<sup>1</sup>·까지<sup>1</sup>은 시공간적 격기능어(근원격 Source, 도달격 Goal), 부터<sup>2</sup>·까지<sup>2</sup>는 even, also 뜻을 내포하는 한정조사이다.

인식해온 조사의 기능이 사실상 조사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체언과 용언의 NP-VP의미기능에 좌우되는 것임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물이——다’ 구문의 경우 ‘물’에 제시나 지시(지정)의미의 조사 ‘이’<sup>9)</sup>가 붙어 ‘물이’가 되면 ‘이’를 아직 주격표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물이’만으론 ‘물’의 격이 불명이고 아래(6)의 예처럼 오직 후행 결합하는 서술용언 V와의 성질에 따라 표면 성분격과 내면 의미격이 결정된다(아래 괄호에서 앞이 표면성분격, 뒤가 내면의미격 명칭이다).<sup>10)</sup>

- (6-1) 물이 많다. (물: 주격, 대상격)
- (6-2) 물이 얼음으로 된다. (물: 주격, 근원격)
- (6-3) 물이 건강에 좋다. (물: 주격, 도구격)
- (6-4) 물이 먹고싶다. (물: 목적격, 대상격)
- (6-5)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 (물: 보격, 도달격)

즉 위에서 처럼 ‘물이’에 후행 결합된 용언류와의 의미기능을 통해 ‘물’의 성분격 및 의미격기능은 다양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체언의 격이란 서술용언 V에 지배받는 범주임을 알겠고 위에서 쓰인 조사 ‘이’를 주격기능이나 어떤 특정한 격기능 전용표지로 선입견적 오해를 해서 안될 것이라 하겠다. 오히려 ‘이’를 (6)의 각 예문에서 쓰인 각 격기능표지로 명명하기 이전에<sup>11)</sup> ‘이’가 지닌 고유 의미소가 여러 발화상황에서 갖게되는 발화상황지시적 기능을 변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본고에서 시도하는 화용 상황에서의 조사기능의 실마리인바 다음 4.에서 따로 살펴 본다.

#### 4. 앞(6)의 예문들에서 ‘이’조사 대신 ‘井(無標), 은, 도, 만, 이야’

9) Ramstedt(1939), 이희승(1956), 참조.

10) 표면격(surface case=성분격, 통사격), 내면격(deep case=의미격, 심층격)의 2분개념이 구별됨. 김민수(1981), Nilsen(1972, 1973) 참조.

11) 예로 (6-1)의 ‘이’는 주격표지, 대상격표지, (6-5)의 ‘이’는 보격표지, 도달격표지라고 명명하는 따위.

같은 조사를 대치시켜 예문을 비교하면 아래(7)이 되는데 이때에도 체언 ‘물’의 격기능은 (6)과 변함없이 동일하게 됨은 당연하다. 이것은 체언을 지배하는 용언 V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 (7-1) 물(#, 이, 은, 도, 만, 이야)맑다. (물:주격, 대상격)
- (7-2) 물(#, 이, 은, 도, 만, 이야) 얼음으로 된다. (물:주격, 근원격)
- (7-3) 물(#, 이, 은, 도, 만, 이야) 건강에 좋다. (물:주격, 도구격)
- (7-4) 물(#, 이, 은, 도, 만, 이야) 먹고 싶다. (물:목적격, 대상격)
- (7-5) 얼음이 녹아 물(#, 이, 은, 도, 만, 이야) 된다. (물:보격, 도달격)

위에서 우리는 여러 조사와의 문맥 사용 비교를 통해 ‘이’의 경우는 다른 조사 의미소에 의한 발화상황과 비교할 때 중성적(neutral) 일반상황에서 선택되어 쓰이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은’은 ‘대조·주제상황’, ‘도’는 ‘동일지시상황’, ‘만’은 ‘유일지시상황’, ‘이야’는 ‘강조, 당위 지시상황’과 같은 특수 발화상황에서 선택 사용된 조사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격조사와 특수조사(보조사)라는 격기능과 가의성(加意性) 유무에 따른 국어조사의 일반적 분류가 화용상황의 차원으로 볼 때는 중성문(neutral sentence)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 발화상황에 쓰이는 조사류와 특수한 발화상황에서 쓰이는 조사류의 분류로도 확대 해석될 수 있으니 소위 격조사류들은 중성문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 발화상태에 소용되는 기본 조사류임을 알 수 있고 특수조사류들은 다양한 특수발화상황에서 소용되는 조사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화용론적 고찰을 더 진행하기 위하여 ‘물+맑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여러 발화상황이 조사의 교체를 통해 어떻게 다양하게 펼쳐지는가 살펴보자(아래의 발화문에서 ‘물’은 모두 주격기능이며 화살표→ 방향은 발화문의 생성방향을 뜻한다.)

12) 중성적 일반상황이란 특수조사 개입에 의한 다양한 의미 표현없이 격조사 ‘이/가, 의, 을/를, 예, 로, 와’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발화상황이다.

<기지의미> → <발화지시상황> → <발화상황선택표지(조사)> → <발화문>

(8- 1)	{물} + {읽다} + 無標	단순정보	지시상황 #	물	읽다	단순주제지시상황
(8- 2)	"	+有標(단순정보 또는 강조)	지시상황 <sup>13)</sup> 이	물이	읽다	
(8- 3)	"	+소극적강조,	당위 지시상황	이야	읽다	
(8- 4)	"	+적극적강조,	당위 지시상황	이야	말로 읽다	
(8- 5)	"	+겸양법호응	지시상황	요	물입니다	
(8- 6)	"	+관용적 평대호응	지시상황	말이다	물말입니다	
(8- 7)	"	+대조,	주제 지시상황	은	물	
(8- 8)	"	+동 일	지시상황	도	물	
(8- 9)	"	+동일, 최종	지시상황	마저	물	
(8-10)	"	+동일, 양보, 가정	지시상황	라도	물	
(8-11)	"	+동일, 최저, 최종	지시상황	조차	물	
(8-12)	"	+동일, 의문법 호응	지시상황	나들	물	
(8-13)	"	+동일, 방임, 가정	지시상황	든지	물	
(8-14)	"	+최종, 한정, 동일	지시상황	까지	물	
(8-15)	"	+유 일	지시상황	만	물	
(8-16)	"	+유일, 선택, 방임, 상황	지시	나	물	
(8-17)	"	+유일 강조, 최종	지시상황	나마	물	
(8-18)	"	+유일 강조, 부정반어법호응	지시상황	밖에	물	
(8-19)	"	+최 초	지시상황	부터	물	
(8-20)	"	+자 격	지시상황	라고	물	유일지시상황

이상에서 소위 주격 '이'라 하는 것은 (8-2)에서 알 수 있듯 여러 발화 상황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순정보지시상황 또는 강조지시상황에 선택된 '발화상황지시표지'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보통 문법연구의 모델이 되는 언어재료가 모든 발화문중에서 대개 이러한 기본적인 단순정보지시 상황문(이것이 곧 중성문 neutral sentence)이므로 이 경우에 쓰이는 조사류를 즉 단순정보지시상황에 쓰이는 기본조사류, 예컨대 이/가, 을/를, 에, (에)서, (으)로, 와/과, 의...등을 우리는 격조사로 보아온

13) 단순히 제시, 지정의 상황이면 단순정보, 강조 상황일때는 강조라 함.



것이 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화용론적 관점에서는 조사를 통사 의미론적으로 격조사와 특수조사로 분류해 온 지금까지의 태도를 넘어서, 조사를 체언의 발화 상황지시표지(Nominal utterance marker), 또는 체언의 발화문맥지시표지(Nominal context marker)로 볼 수도 있다는 가정이 가능케 된다.

특히 위에서 (8-1)~(8-6)처럼 주격 체언에 붙는 ‘#, 이, 이야, 이야말로, 요, 말이야’의 언어 사용빈도를 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이’를 뺀 나머지 표지들은 구어체의 관용적 어법, 그것도 주로 소형, 단형문에서 주격 표지로 쓰이는 조사들이지만 구어체와 같은 발화상황까지도 포괄하는 화용론적 견지에서는 이들 조사들은 대등한 발화상황지시표지로 다룰 수 있고, 지금까지는 ‘이’와 ‘이’의 생략형인 ‘#’ 중심으로 격개념을 논의해 온 것이므로 이제 격개념의 본질에 의해서도 격형태보다 체언 자체에 격의 개념이 복귀한다는 뜻에서 이들 조사들에 대해 화용론적으로 대등하게 살필 가치는 있다고 하겠다.

또한 조사들의 의미소 파악을 중심으로 조사들에 대한 화용론적 논의를 시도할 때 적어도 우리는 다음 두가지 이로운 점을 찾게 된다.

첫째, 그동안 국어학의 문제점이었던 ① # (無標形)을 ‘이/가’ 같은 조사의 생략형으로 보는가의 문제점,<sup>14)</sup> ② ‘이/가’~‘은/는’의 비교를 통한 주어와 주제의 개념 및 접주어문제<sup>15)</sup>가 통사론과 의미론의 영역에 간혀 해결의 실마리를 보기 어려웠던 실정이었는데 화용론적인 발화상황의 측면에서 ‘#’과 ‘이/가’와 ‘은/는’의 발화상황적 고유가치를 인정한다면 ‘이야, 이야말로, 요, 말이야’를 추가 하여 (8-1)~(8-7)에 이류는 단순주격 상황지시표지로 ‘#, 이/가, 이야, 이야말로, 요, 말이

14) 줄고(1982)는 이 문제를 집중분석했다.

15) Lyons(1968:334-341), Li(1976)의 Subject와 Topic개념과 국어에서 임흥빈(1972), 채완(1976)의 논의 참조. 접주어이론은 박순함(1970), 서경수(1971), 신찬순(1975), 정인성(1980) 참조.

아, 은/는'에 이르는 표지들의 목록이 이뤄질 것이다.

둘째, 언중들의 발화습관에서 자유교체 양상이나 배타적 대립양상을 보여주는 '조차~마저', '나~나마', '같이~처럼~마냥(모양)', '와/과<sup>1</sup>~하고~(이)랑', '와/과<sup>2</sup>~(이)며~(이)고', '을/를~보고~갖고~두고'<sup>16</sup>와 같은 조사(내지는 후치사) 어류 들을 언어학상 화용론적으로 포괄적 기술을 할 수 있게 되는 잇점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들을 형태론적 이형태 내지는 어휘(의미)론적 이형태로 보아 온 것이나 위 조사어류들은 언중들의 발화 습관을 증시한 화용론적 견지에서 일종의 화용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Pragmatically conditioned allomorph) 또는 간단히 화용론적 이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르면 첫째 사항에서 살핀 '#, 이/가, 이야, 이야말로, 말이야, 요, 은/는'의 경우도 화용론적 이형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형태론적 이형태 개념과 어휘(의미)론적 이형태 개념보다 이들을 포괄하는 화용론적 이형태 개념이 합리적인 것은 위 조사류들이 형태및 어휘(의미)론적 이형태의 각 개념에 정확히 구별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형태론적 이형태같은 예로 '조차~마저'의 경우를 살펴 보자.

우선 '조차~마저'는 형태론에서 말하는 자유변이형태 처럼 예컨대 과거시제보조어간 '았~었'이 '잡았다~잡었다'의 경우처럼 자유교체되듯이 언중이 무의식적으로 의미 구별없이 쓰는 발화 양상이 보인다.

(9-1) 너조차 가려는 구나

(9-2) 너마저 가려는 구나

아직 언중들에게 (9-1), (9-2)의 두 문의 의미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위 문에서 상호 '조차', '마저'를 교체시킬 때 의미차

16) 이런 어류의 의미분석으로 고영근(1976b), 채완(1977)의 특수조사의 의미 분석이 선구적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가 없으므로 자유변이 (또는 자유교체) 형태의 조사라 할 수 있고 자유변이를 보이는 형태론적 이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발화 양상은 ‘조차’, ‘마저’가 자유교체되는 언어습관의 양상을 안 보이고 배타적이다.

(10-1) 너조차\* 가져라.

(10-2) 너마저 가져라.

(9-1,2)가 탄식, 감탄의 정감적 의미를 내포한 ‘even’의 뜻으로 자유교체되는데 반하여 (10-1,2)는 명령형의 발화상황인데 ‘조차’의 사용을 배척하는 것이 오늘의 언어 습관으로 보인다. (10-1)의 경문(正文)으로서의 인지 허용도(acceptability)<sup>17)</sup>가 개인마다 다르겠으나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명령발화구조의 경우 ‘조차’는 배척된다고 삼정 결론지을 수 있다. 아래의 명령발화문도 이를 증거한다.

(11-1) 책(조차\*, 마저) 사거라.

(11-2) 칠수야, 밥(조차\*, 마저) 먹어라.

이와같이 ‘조차~마저’의 출현이 배타적인 경우는 분명 이들 두 조사가 의미차가 있어 어휘 의미론적 이형태로 변별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9)처럼 형태론적으로와 (10), (11)처럼 어휘(의미)론적으로 복합적 양상을 보이는 이들 ‘조차~마저’는 어느 한 쪽에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종합적으로 화용상에서의 발화원리가 자유교체와 배타적 대립의 양상을 보이게 하는 것으로 보아 화용론적 이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는 ‘조차~마저’의 (10), (11)에서의 같은 배타적 양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단정할 수 없으나 ‘조차, 마저’의 어휘의미론적 특성보다는 오히려 특정 이유 없이 언중들의 발화습관의 힘에 강렬히 지배받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결국 형태, 어휘(의미)론적 복합양상을 보이는 앞서 지적한 조사류는 화용상에 비취 해석할때 화용론적 이형태

17) Lyons(1968:137) 참조.

의 개념으로 수렴하여 문법적 기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5. 에서 화용론적 이형태로 볼 수 있는 조사류를 구체적 예로 살펴 본다.

5. ① ‘#, 이/가, 이야, 이야말로, 말이야, 요, 은/는’

이들은 이 글 3과 4에서 집중 논의하였으므로 여기서 재론은 피하며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들 조사 P<sup>18)</sup>가 체언 N에 첨가될 때((N<sub>p</sub>), 서술용언 V가 연결되기 전에는 아직 격기능이 결정되지 않고 각 조사의 미소에 따른 발화상황지시 기능을 먼저 갖는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 3단계 생성과정으로 표시될 것이다.

(12) N 체언어휘선택	예 : 물
↓	
N <sub>p</sub> 체언발화상황지시를	: 물이(격기능은 미지수, 아직 추적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 위한 조사선택	
N <sub>p</sub> -V 체언통사·의미	: 물이 맑다.(물 : 주격, 대상격)
기능(격기능)	물이 얼음으로 된다(물 : 주격, 근원격)
지시	물이 건강에 좋다(물 : 주격, 도구격)
	물이 먹고싶다(물 : 목적격, 대상격)
	물이 된다(물 : 보격, 도달격)

② ‘조차~다저’ : 앞 논의 참조.

③ ‘(이)나~(이)나마’

ㄱ. 자유교체 상황

(13-1) 날씨가(나, 나마) 좋아야지

ㄴ. 배타적 대립상황

(13-2) 커피(나, 나마\*) 차는 마시지말라.

(12-3) 나는 노래(나, 나마\*)듣고 있겠다.

④ ‘같이~처럼~마냥(모냥, 모양)’

ㄱ. 자유교체 상황

(14-1) 호랑이(같이, 처럼, 마냥) 생겼다.

18) 조사를 후치사(postposition)방식으로 보아 postposition의 약자 p로 함.

ㄴ. 배타적 대립상황

- (14-2) 사랑(같이, 처럼?, 마냥\*?) 귀한 것은 없다.
- (14-3) 세월은 유수(같이, 처럼, 마냥\*?). (속담)
- (14-4) 이상과(같이, 처럼\*, 마냥\*)

⑤ ‘와<sup>1</sup>~하고~(이)랑’ (단 ‘와<sup>1</sup>’은 서술용언 V에 최근접한 ‘와’로 與同性)<sup>19)</sup>이강함

ㄱ. 자유교체 상황

- (15-1) 그는 나(와, 하고, 랑) 같 것이다.

ㄴ. 배타적 대립상황

- (15-2) 빠르기가 번개(와, 하고\*, 랑\*) 같다. <비교상황>

‘와’~하고~랑’은 거의 완전한 자유교체를 보여 배타적 환경이 위의 예 정도이나 화용상 친근도가 깊은 담화에서는 ‘하고, 랑’이 많이 쓰이는 편이고 ‘와’는 정중체, 문어체의 화용상에서 쓰이는 경향이다.

⑥ ‘와<sup>2</sup>~(이)며~(이)고’ (단, ‘와<sup>2</sup>’는 집단폭용내부의 열거성의 ‘와’임)

ㄱ. 자유교체 상황

- (16-1) 너(와, 며, 고) 나(와, 며, 고) 할 것없이 다 그리되었네.

ㄴ. 배타적 대립상황

- (16-2) 회사 와 학교가 다 망하지는 않았다.
- (16-3) 회사 며 학교가 다 망하지는 않았다.\*
- (16-4) 회사 고 학교가 다 망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래처럼 긍정문의 경우는 자유교체를 보임이 특이하다.

- (16-5) 회사와 학교와 다 망했다.
- (16-6) 회사며 학교며 다 망했다.
- (16-7) 회사고 학교고 다 망했다.

19) 與同性이 강한 ‘와<sup>1</sup>’과 列舉性이 강한 ‘와<sup>2</sup>’를 구별했다. 김원진(1966, 1970) 참조. 예로, ‘나와 너와 간다’는 ‘나와<sup>2</sup> 너와<sup>1</sup> 간다’이다.

전체적으로 與同性 ‘와<sup>1</sup>’ 과 列舉性 ‘와<sup>2</sup>’ 가 구별되어 와<sup>1</sup>류조사(와<sup>1</sup>~하고~랑) 자체끼리와 와<sup>2</sup>류조사(와<sup>2</sup>~머~고) 자체끼리는 자유교체경향이 짙고 와<sup>1</sup> 류와 와<sup>2</sup> 류상호는 배타적 경향이 짙다. 예로, 아래(16-8)의 조사류는 (16-9)의 조사류로 바꾸면 非文을 만든다.

(16-8) 나(와, 학교, 랑) 너(와, 학교, 랑) 같 것이다.

(16-9) 나(머, 고) 너(머, 고) 같 것이다\*

⑦ ‘을/를~보고~갖고~두고’

ㄱ. 자유교체 상황

(17-1) 나(를, 보고, 갖고, 두고) 육한다.

ㄴ. 배타적 대립상황

(17-2) 나(를, 보고\*, 갖고\*, 두고\*) 주었다.

‘보고, 갖고, 두고’는 동사에서 문법화된 어류로 내상격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사전에 조사(또는 후치사)로 등록되어야 할 것이다.

⑧ 기타

그밖에 ‘한테~더러~에게’, ‘대신~말고’, ‘때문~까닭~덕분’, ‘정도~만큼~쯤’ 따위의 아래와 같은 자유교체 양상도 형태 통사론적으로 널리 취급되어 왔던 것들이지만 (예로 ‘때문, 만큼’은 불완전명사, ‘代身, 德分, 程度’는 한자계명사, ‘쯤’은 접미사로 달리 취급되나)<sup>20)</sup> 이들이 화용상에서는 형태·통사적 범주를 넘어서 자유교체적으로 출현됨에 화용론적인 이형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8-1) 나(한테, 더러, 에게) 말했다.

(18-2) 나(대신, 말고) 네가 가라.

(18-3) 그의 성공은 근면함(때문, 까닭, 덕분)이야

(18-4) 그(정도, 만큼, 쯤) 해두면 된다.

20) 이의 자세한 논의는 줄고(1982) 참조.

이러한 체언 N아래에 붙는 여러 어류가 문법화되어 근본 조사류와 자유교체 양상을 보여준 화용론적으로 계속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6.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할 때 체언은 표면통사기능, 즉 성분기능을 통해 성분번주가 설정되어 성분기능에 따른 성분격기능을 수행하며 내면의미기능을 통해 내면격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국어조사중 격조사라 해온 것은 화용론적으로 기본발화 상황지시표지에 동원되는 조사이며 특수 조사라 해온 것은 특수발화상황지시표지에 동원되는 조사이고 조사류와 다른 조사류와의 자유교체(‘마저~조차’ 따위)나 조사류와 다른 어류(‘대신, 갖고, 정도, 쯤’ 따위)와의 자유교체는 화용론적 이형태란 개념으로 살필 수 있는데 앞으로 조사와 격개념에 대한 보다 깊은 화용론적 분석을 통해 국어 조사의 문법적 기술이 한층 정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金敏洙(1970), 국어의 격에 대하여, 국어 국문학 49, 50합병호  
 \_\_\_\_\_(1976), 국어문법론연구, 일조각  
 \_\_\_\_\_(1981), 국어의미론, 일조각  
 金相大(1973), 文의 成分과 格에 관한 고찰, 국어국문학, 62, 63 합병호  
 김영희(1974), 한국어조사류어의 연구, 문법연구 1집  
 金完鎭(1966), 집단공용의 문제에 대하여, 동아문화 6.  
 \_\_\_\_\_(1970), 文접속의 ‘와’와 句접속의 ‘와’, 어학연구 6-2.  
 김중택(1982), 화용론, 형설출판사  
 閔賢植(1982), 현대국어의 격에 대한 연구 —無標格의 정립을 위하여—  
 국어연구 49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순형(1970), 격문법에 입각한 국어의 겹주어에 대한 고찰, 어학연구  
 6-2.  
 서정수(1971), 국어의 이중주어 문제, 국어국문학 62.

- 성광수(1979), 국어조사의 연구, 형설출판사.
- 신창순(1975), 국어조사의연구(I), 국어국문학 67.
- \_\_\_\_\_ (1976), 주어조사의 연구(II), 국어국문학 71.
- 李崇寧(1953), 격의 독립품사시비, 국어국문학 3.
- 任洪彬(1972a), 국어의 주제화연구, 국어연구 28.
- 장석진(1975), 문담의 화용상, 어학연구 11-2.
- \_\_\_\_\_ (1976), 대화의 분석: 정보와 照應, 응용언어학 8-2.
- 鄭仁祥(1980), 현대국어주어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44.
- 蔡琬(1977), 현대국어 특수조사의 연구, 국어연구, 39.
- \_\_\_\_\_ (1976), 조사 '는'의 의미, 국어학 4.
- 崔鉉培(1971), 우리말본, 정음사
- Anderson, J.M. (1971), *The Grammar of Case: Towards a Localistic Theor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fe, W.L. (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illmore, C.J. (1966), "Toward a Modern Theory of Case" Reibel and Shane, (ed.) *Modern Studies in English*.
- \_\_\_\_\_ (1968), "The case far case" In Bach and Hams.
- \_\_\_\_\_ (1971), *Some Problems for case Grammar*,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0.
- Li, C.N. (ed.) (1976),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 Lyons, J.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lsen, D.L.F. (1972), *Toward a Semantic Specification of Deep case*, The Hague: Mouton.
- \_\_\_\_\_ (1973), *The Instrumental Case in English*, The Hague: Mouton.